

지속 가능한 어촌·어업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 다진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되돌아보며, '2024 강원 해양수산발전대회' 개최
- 무궁무진한 어촌·어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돌이켜보며,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토론의 장 '2024년 강원해양수산발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학·연 유관기관,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어촌, 더 나은 삶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병호 사장은 "우리 어업·어촌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우고,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인과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삶터·일터·쉼터로써 바다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김한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도 수산업 활성화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번 토론의 장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는 강원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 소비트렌드와 미래전략', '수산업의 현실과 어업 선진화 시대 대응'을 주제로 미래 강원 어촌과 어업 선진화 시대에 대응 방안을 다룬 발표가 시작됐다.

또한, ▲어촌정책 ▲연어양식·식품 ▲내수면·어도 ▲항만·연안 등 4개 분야별 전문가 제언과 함께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가 비단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촌, 어업의 발전을 위한 공유의 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담당 부서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거동 (033-240-9607)
		담당자	대 리	김하나 (033-240-9736)